

# 전남 버스터미널 40%, 준공 40년 넘어 '노후화'

## 영암·장흥 버스터미널 가보니

농어촌 인구 감소·코로나19 여파  
연간 1000만명선 이용객 '반토막'  
매출액 급감... 상가 공실률도 높아  
도 "환경 개선, 운영 활성화 노력"

10일 오후 찾은 장흥시외버스터미널. 흔히 터미널 하면 떠오르는 복적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한적한 분위기였다.

대합실 내 달달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선풍기 앞에 설치된 작은 평상에는 어르신 서너 명이 익숙한 듯 둘러앉아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노후화된 터미널 내부에는 과자, 음료수 등의 간식이 진열된 매점과 빗바랜 간판을 단 분석집과 휴대전화 대리점이 전부였다.

인근 주민 60대 장모씨는 "터미널 자체가 지어진 지 엄청 오래됐다"며 "젊은 사람들은 다 개인 차로 다니다 보니 버스터미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도 상황은 비슷했다. 상가 대부분이 비어있었고 2층에는 자물쇠로 출입문이 굳게 닫힌 사무실이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모습이였다.

대합실 의자에는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다녀와 짐이 가득한 어르신들이 20분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일 오후 찾은 장흥시외버스터미널. 건립된 지 수십 여년이 지나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

버스 기사들은 영암군이 이번 달부터 시행한 무료 버스 운행 서비스 덕에 그나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10년째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 한보석(58)씨는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나서 3분의 2가량 이용객이 늘었다"며 "시장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목포나 인근 지역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게 신기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동료 기사 최용준씨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아직 터미널 상권은 활기를 되찾지 못한 상황이다"며 "터미널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급감과 터미널 노후화 등이 겹치면서 전남시

역 버스터미널 이용객과 매출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48개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 1056만명, 2018년 1015만명, 2019년 941만명 등의 수준을 기록했으나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에는 568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21년 502만명, 2022년 520만명, 2023년 514만명 등이

유지되고 있다.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2017년 72억4500만원, 2018년 71억3900만원, 2019년 74억7500만원 등 70억원대를 기록하던 매출이 2020년 45억원, 2021년 41억7900만원, 2022년 47억6900만원, 2023년 49억5300만원으로 40억원대로 감소했다.

이용객과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는 코로나 이후 버스보다 승용차를 선호하는 등 이동 수단 변화와 농어촌 인구 감소가 꼽힌다. 버스터미널의 낡은 시설도 이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버스터미널은 총 48곳(시군 운영 6곳·민간운영 42곳)으로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터미널은 19곳(39.5%), 20년이 상·40년 미만인 터미널도 18곳에 달한다.

전남도는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 터미널 환경 개선과 함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령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시급한 노후 터미널을 조사해 2027년까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6억원을 들여 여수, 곡성, 강진, 장성, 진도 등 터미널 5곳에 대한 환경과 안전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며 "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터미널 운영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혜택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 화순서 이웃에 흥기 휘두르고 도주한 60대 숨진채 발견

### 극단적 선택 추정

화순서 동네 이웃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순군 사평면 금당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화순군 사평면 한 밭에서 60대 B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

치게 한 뒤 야산으로 도주했다.

동네 이웃사이였던 이들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A씨가 집에서 흥기를 가지고 B씨의 고추밭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천기 기자

## 검찰, 직장동료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살해하고 수차례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가석방이 가능한 23년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며 가

벼운 처벌로 인한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동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동료 B(26)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

자 흥기로 찢려 살해한 뒤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수차례 방화 시도로 다른 호실 입주주민들도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며 경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천기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